

부산 독립영화의 현실과 과제*

- 영화 제작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

남영희**·김근자***·조영애****·이순욱*****

1. 들머리
2. 독립영화의 정체성과 의미
 - 1) 독립영화라는 용어의 다층성
 - 2) 독립영화의 지향과 논리
3. 부산 독립영화와 로컬리티
 - 1) 로컬 인식과 로컬리티 전략
 - 2) 영화중심지 부산의 상상
 - 3) 부산에서 독립영화하기
4. 마무리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영화 제작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독립영화의 정체성과 의미, 부산 독립영화와 로컬리티를 살펴보았다. 서면인터뷰, 대면인터뷰, 간담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 독립영화는 과거의 사회운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업영화 제작을 위한 포트폴리오나 자기서사적 기록물, 지원사업 대상으로서의 정책용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늘날 독립영화라는 용어를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독립영화의 지향점 역시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부산 독립영화의 로컬리티를 드러내는 전략으로는 고향

* 이 논문은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23년 부산학 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 1 저자, 부산대학교 강사(eunice@pusan.ac.kr)

***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gogo0502@pspujun.es.kr)

****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aehya@hanmail.net)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교수(enfb@pusan.ac.kr)

이라는 장소성, 사투리로 상징되는 경상도 지역의 정서, 개항도시와 피란수도의 역사성을 들고 있으며, 영화교육과 지원제도,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인프라를 지닌 영화도시 부산의 미래에 대한 믿음에서도 로컬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영화중심지 부산의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화인의 자기 인식과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이는 영화인으로서의 상업적 성공에서부터 사적 기록, 영화도시 부산과 사회적 담론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욕망이 자리한 부산 독립영화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 주요어: 부산, 독립영화, 로컬리티 전략, 영화제작자, 영화지원사업

1. 들머리

독립문화는 하위문화의 다른 이름이었다. 고급문화가 상위권력이라면 독립문화는 그 대척점에 위치한다. 독립문화는 고급문화와 갈등하거나 길항하면서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고 상위권력에 저항하는 힘을 가진 매체로 인식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독립문화를 하위문화의 의미망에 가두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영국과 같은 노동계급 문화와 문화운동이 존재하지 않았던 한국의 독립문화를 유럽 하위문화의 복잡한 계보 속에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개발독재시대와 87년 체제를 건너 신자유주의의 그늘이 깊어가는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의 격류와 기술혁명이 사회변화를 가파르게 추동하는 현대사회에서 계급운동이나 청년 세대문화로 해석하기도 적절하지 않다. 문화의 형식과 내용, 존재 방식과 가치가 특수한 역사적 국면의 산물이라 본다면, 독립문화에 대한 개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독립영화는 독립문화의 대표적인 장르다. 독립문화의 의미망이 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영화의 개념과 대상 역시 크게 달라졌다. 더 이상 주류문화나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낮은 현상이거나 상업영화의 주변

적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심지어 때로는 독립영화가 주류화되는 현상마저 빚어지게 된 데는 영화환경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기기와 기술의 발달, 생활문화의 약진에 따라 영화제작에 접근이 한결 손쉬워지면서 영화제작자의 범주가 크게 확장되었다. OTT와 같은 향유 플랫폼의 다변화와 아울러 능동적인 관객운동, 적극적인 커뮤니티 시네마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독립영화의 외연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폭으로 넓어지고 있다.

독립영화 연구 경향은 내러티브 탐구, 서사구조 분석, 경향 및 역사 연구, 방법론, 실험적 양식, 지향점과 쟁점들 연구, 가능성의 모색, 장소성과 표상, 지원정책 연구, 연출 연구, 미학론, 관람행동, 비평 등 매우 다양하다. 그중 부산지역의 독립영화 작품과 독립영화에 대한 담론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산 독립영화 감독 작가론과 작품론이다.¹⁾ 부산독립영화협회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은 이러한 성과를 갈무리하는 주요 장이다. 매체의 정체성이 지역 독립영화의 작품 홍보나 아카이빙에 있는만큼,²⁾ 비평보다는 부산 독립영화 감독들의 주제의식이나 연출 기법, 주제로 다루고 있는 사회현상을 개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다. 특정한 감독이나 작품을 심도있게 다루기보다는 부산 독립영화 제작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부산 독립영화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이다.³⁾ 부산 독립영화 제작과 유통의 인적·물적 기반을 살피고 제도적 차원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거나 돌파구를 찾는 데 집중한다. 좌담회나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1) 강소원, 「공간의 역사와 시간의 기억: 오민욱의 구조주의 다큐멘터리 연구」, 『아시아영화연구』 11(1),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18, 61~99쪽; 김이석·허은희, 「부산 독립다큐멘터리 연구: 김영조, 박배일, 김지곤의 작품을 중심으로」, 『디지털영상학술지』 16, 한국디지털영상학회, 2019, 27~59쪽; 박인호, 「부산의 공간에서 김희진 감독을 읽다」,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25, 부산독립영화협회, 2006, 3~33쪽 등.

2) 문재원 외, 「2010년 이후 부산영화의 현실」,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18, 부산독립영화협회, 2021, 18~19쪽.

3) 강소원, 「변방의 변방, 지역 독립영화의 현황: 부산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15, 영상예술학회, 2009, 157~184쪽; 김이석, 「지역영화의 위기 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부산독립영화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4,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0, 43~69쪽; 문재원 외, 「2010년 이후 부산영화의 현실」,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18, 부산독립영화협회, 2021, 9~52쪽; 최민규, 「부산에서 애니메이션을 한다는 것」,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4, 부산독립영화협회, 2007, 37~56쪽 등.

목소리를 담아내는 형식을 취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 셋째, 부산 독립영화사 갈무리다.⁴⁾ 부산 프랑스문화원과 씨네필 운동과 씨네마떼끄 1/24을 비롯해 영화공동체와 영화운동의 역사와 흐름을 제시하여 1980년대 이후 독립영화가 부산에 자리를 잡고 영토를 확장해 온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영화에 나타난 부산의 이미지와 장소성에 주목하면서⁵⁾ 지역을 다만 이미지로 소비하지 않고 로컬리티와 연결하려는 시각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부산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부산 독립영화 제작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 독립영화 연구에서도 부산 독립영화의 지형이나 부산 독립영화인의 실태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⁶⁾ 부산에서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이들은 왜 독립영화를 제작하며 무엇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을까. 특히 영화계 진입 과정이 다변화된 오늘날 이들이 마주하는 장벽이나 좌절과 지체의 경험에는 과거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독립영화 제작자라는 선택과 도전은 자본력이나 주류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 나름의 가치와 신념을 실천하는 능동적이면서도 의식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독립영화 제작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일은 부산 영화계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길이자 부산 독립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마중물이라 할 수 있다.

-
- 4) 강소원, 「부산독립영화에 대하여(역사, 현황, 작품경향)」, 『독립영화』 2, 한국독립영화협회 1999, 110~114쪽; 김은영, 「부산 영화문화의 기억들」,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24, 부산독립영화협회, 2005, 2~11쪽; 문관규, 「영화 운동가의 초상과 독립 영화 운동의 풍경—이효인, 『한국 뉴웨이브 영화와 작은 역사』(한상연영화연구소, 2021)」, 『한국극예술연구』 76, 2022, 191~205쪽; 부산독립영화협회, 「씨네마떼끄 1/24 지금 다시 떠올리다」,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2, 부산독립영화협회, 2005, 53~81쪽; 주성철, 「부산대학교 영화연구회에서 FRAME까지」,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2, 부산독립영화협회, 2005.12, 48~52쪽 등.
- 5) 문재원, 「부산 독립영화에 재현된 ‘영도(影島)’의 장소 정체성」, 『한국민족문화』 7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9, 169~202쪽; 손은하, 「지역 영화에 나타난 로컬이미지의 허상」, 『인문콘텐츠』 42, 인문콘텐츠학회, 2016, 127~150쪽; 엄준석, 장슬기, 「지역의 정체성과 영화의 재현방식」, 『인문콘텐츠』 31, 인문콘텐츠학회, 2013, 57~81쪽 등.
- 6) 김영기 외 여럿, 「2016년 한국 영화산업 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 2018; 김지현 외 여럿, 「독립영화 생태계 구조 분석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8; 김지현 외 여럿, 「한국 독립영화·독립영화인 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 2018; 박채은 외 여럿, 「독립·예술영화의 사회적 가치 지표개발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21.

이 연구에서는 부산 독립영화 제작자의 인식을 살핍으로써 독립영화의 새로운 의미망과 지향점을 확인하고 부산 독립영화의 로컬리티 인식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부산 독립영화 감독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 대면 인터뷰, 간담회를 진행하였다.⁷⁾ 지역 독립영화계의 활동 양상과 현재를 포착하는 연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 독립영화 활동 환경의 실정, 활동 양상, 활동 공동체와 네트워크의 지형도 등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창(窓)으로서 오늘날 부산의 독립문화 현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화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독립영화의 정체성과 의미

1) 독립영화라는 용어의 다층성

범박하게 독립영화란 일반 상업영화의 제작과 배급 체계에서 벗어나 작가 정신을 추구하는 영화를 말한다.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나라마다 명칭이 다양하다. 가령, 미학적 혁신과 예술성을 강조하는 프랑스에서는 예술·실험영화(film d'art et d'essai)라 부른다. 미국에서는 인디영화(independent film)라 한다. 20세기 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 소니, 디즈니, 유니버설, 넷플릭스, 워너브로스와 같은 메이저 영화사가 주도하는 영화산업의 구조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다. 일본에서는 독립영화라 부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인디영화와 다르지 않다. 도호, 도메이, 쇼치쿠의 3대 메이저 영화사를 제외한 다른 영화사들이 제작한 모든 영화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독립영화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메이저 필름 스튜디오나 대형 엔터테인먼트와 무관한 자국의 영화를 뜻하는 용어다.

오늘날 미국과 일본, 영국에서 통용되는 독립영화의 의미를 고려하면, 독

7) 2023년 5월 26일~5월 31일(7일간) 부산 영화감독 13명을 대상으로 한 서면인터뷰, 2023년 5월 31일 17시 영화감독과 제작자, 독립영화협회 관계자, 영화운동 활동가가 참여한 간담회, 2023년 6월 9일 15시 청년 감독들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독립영화의 개념과 인식, 제작 및 배급 경험, 부산 독립영화에 대한 인식과 발전방안을 탐문하였다.

립영화는 대형 영화산업의 구조 안에서 제작되느냐 바깥에서 제작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한국에서도 충무로 중심의 영화산업 바깥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는 독립영화라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제작하는 모든 영화를 독립영화라 부르는 일은 결코 무리가 아니며, 부산에서 제작한 모든 영화는 독립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문물 수용의 길목이었던 개항도시 부산은 뒷날 영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문화적 바탕을 갖추고 있었다. 조선키네마주식회사 <해(海)의 비곡(秘曲)>(1924), 부산예술영화제작소 <해연(海燕)>(1948), 향토문화연구회 <낙동강>(1952) 등 부산에서는 일찍부터 영화가 제작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1970년대 소형영화운동으로 이어졌다. 아마추어들이 설립한 영화동호회와 단체에서 제작한 영화는 국내외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제5회 히로시마 국제아마추어영화제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농부>, 제15회 전일본콩쿠르에 입상한 <원>이 대표적이다.

비디오의 등장과 함께 영상 매커니즘이 급격하게 변화한 1980년대는 부산 영화계의 주요한 변곡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추동한 요인으로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1980년 한국단편영화제(현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창설이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범시킨 단편영화제이자 국내 양대 단편영화제로 자리 잡으며 전국의 관심을 모았다.⁸⁾ 1980년대 초반 부산에서 활동하던 비상업적 영화제작 단체들이 이 영화제에서 작품을 발표했다. 특히 제1회 수상작은 안태곤 <동춘>(금상), 박희숙 <제목없는 에피소드>(은상), 신용대 <다대포의 멀치잡이>(가작)으로, 이들은 각각 중앙대 연극영화과 4학년 학생, 서울예술전문대학 영화과 2학년 학생, 부산소형영화동호회 회원이었다. 둘째, 부산 프랑스문화원 정기상영회다. 1980년 9월 15일 대연동에 부산 프랑스문화원이 개원하면서 문화원 내 극장을 기반으로 정기상영회가 시작되었다. 이 행사에 부산의 젊은 영화인들이 모여들면서 영화 활동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⁹⁾ 고전영화와 최신 프랑스 영화를 중심으로 정기상영회가 거듭

8) 허정식, 「한국단편영화제의 출범」, 『부산영화사』,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282쪽.

9) 서울 독일문화원을 중심으로 영화감독 김홍준, 평론가 정성일, 강한섭이 활동했다면, 부산 국제영화제 창설 멤버 김지석과 오석근은 부산 프랑스문화원을 기반으로 활동했다.

되는 가운데 영화동호회 씨네클럽이 결성되었으며, 씨네필 문화를 선두하는 씨네마테크로 자리매김했다. 셋째, 1983년 부산산업대학교(현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개설이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생긴 영화 전공학과였다. 16mm 필름으로 제작한 경성대 학생들의 단편영화는 본격적인 부산 독립영화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었다. 박곡지 <제5의 벽>(1985), <향>(1986), 전수일 <소리빛깔>(1986), 김복근 <리모콘>(1988)은 이때 탄생한 작품들이며,¹⁰⁾ 1990년까지 단편영화 38편을 제작했다.

1980년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부산 독립영화는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 창설, 1999년 부산 독립영화협회 출범과 부산독립영화제 개최, 영상위원회 설립이 이어지면서 부산 영화의 수작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제50회 칸 영화제에 초청된 전수일 <내 안에 우는 바람>(1997)을 비롯해 염정석, 유상곤, 박지원, 박찬형, 계운경, 김백준, 김휘, 정성욱, 김희진, 김영조, 최용석, 박준범 등 경성대 출신 감독들이 독창적인 스타일의 독립영화 미학을 펼쳐보였다. 제주4·3항쟁을 다룬 조성봉 <레드 헌트>(1997)는 부산 다큐멘터리의 저력을 보여준 작품으로 꼽힌다. 이후 부산예술대, 동서대, 동의대, 영산대, 부산대에 영화학과가 잇따라 설립되면서 젊은 영화인들과 작품들이 등장하게 된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영화산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세계 시장 진출이 활발해졌다. 영화 작업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부산을 지켜오던 영화인들이 서울로 대거 이동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부산영화계는 몇몇 감독들의 작품이 주목받으면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김병준 <개똥이>(2013), 서호빈 <뭇>(2014), 손승웅 <영도>(2015), 김진태 <운동회>(2016), 김수정 <파란입이 달린 얼굴>(2018), 김유리 <영하의 바람>(2019), 박수민·김성국 <아빠는 예쁘다>(2019), 김재식 <이, 기적인 남자>(2018), 김민경 <리메인>(2020), 정지혜 <정순>(2021), 이강욱 <검치호>(2022)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작품은 부산, 전주, 부천 등에서 개최하는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화

10) 박곡지는 한국영화계의 대표적인 편집기사이며, 전수일은 부산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이다. 김복근은 <미술관 옆 동물원>, <인터뷰>, <여고괴담>, <방가?방가!>, <강철대오> 등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했으며,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을 지냈다.

제를 불러일으켰으며, 극장 개봉까지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2010년대 이후 새로운 신인 세력이 등장했다. 스스로 ‘센텀키즈’라 부르는 이들은 해운대구 재송동과 우동 일대에 설립한 영상산업 시설을 기반으로 기관 지원과 인프라를 활용하며 영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화전공자 외에도 영화·영상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도 영화계 진출의 통로로 자리를 잡았다. 영화의전당 영화아카데미나 시청자미디어센터 제작 워크숍이 대표적이다. 칸파베아필름은 영화의전당 영화제작워크숍 수료 후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하고, 협업을 통해 영화제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근대개봉기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부산의 영화제작 전통을 돌아볼 때, 독립영화라는 용어는 시대와 사회문화적 변동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담지해왔다. 그런 점에서 독립영화를 동인영화, 예술영화, 지역영화, 인디영화, 자주영화, 작가주의영화, 저예산영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부산 영화인들은 독립영화라는 용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① 독립영화가 제도적 시스템으로 정착해버렸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독립영화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독립영화라는 개념이 유지되기 위해서 제도적 지원시스템은 필수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6. 오○○)
- ② 제가 느끼기에는 과연 부산에서 영진위나 영상위 지원을 받지 않고 영화를 제작하는 작품이 있을까 한 편이라도 있을까 저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없으면 씨드머니가 없으면 제작 사실은 저도 모르지만 사실 거의 제작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100%인 경우도 많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사업이죠. (간담회, 김○○)

두루 알다시피 정부에서는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의 범주와 기준을 정해두고 그에 따라 제작 및 배급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용문 ①은 이러한 지원사업이 “제도적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고 본다. 제도적 지원 없이 독

립영화가 제작될 수 없다면, 제도적 지원은 독립영화라는 개념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버린 셈이다. 인용문 ②에서는 지원사업이 마중물 차원을 넘어서 지원사업이라는 “씨드머니” 없이는 영화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제작비 전체를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은 부산영화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 자본 없이 영화를 제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영화를 제작한다고 해서 곧 이윤 확보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독립영화가 탄생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제작 자금의 확보일 수밖에 없다.

① 다양한 이야기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한 편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제작비도 사비로 충당하기에 버겁습니다. 원하는 영화를 만들고, 그 이후 자립적인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9. 김○○)

② 투자 관련 인프라 및 네트워크가 현저히 부족한 독립영화인들이 대부분이기에, 정부나 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제작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10. 이○○)

인용문 ①은 “원하는 영화”를 만들어 “자립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인용문 ②의 인식에서와 같이 투자 관련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의 현실에서 투자를 통해 제작비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영화제작이 디지털화되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생기면서 영화제작의 문턱이 낮아진 영화환경에서 지원사업의 필요와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부산에서 독립영화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의 함의를 벗어나 정책용어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독립영화의 지향과 논리

전통적으로 독립영화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권력에 대한 저항, 미학적 관습에 대한 도전을 지향했다. 최근 독립영화는 이러한 전통적 경향성에 균열을 가하며 왜 영화를 하는가,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가에 정치(精緻)한 이

해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 독립영화의 지향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담론 생산물로서의 독립영화다. 지배 이데올로기나 주류문화에 대항하면서 사회적 담론과 의제를 생산하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독립영화의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지향점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전통의 뿌리는 1950년대부터 부산영화계에 형성된 전통 생기기 시작한 대학영화모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¹¹⁾ 1980년대 들면서 시대적 상황을 영화에 담아내는 사회 변혁운동으로서의 영화운동을 펼치는 집단 영상꽃다림이 이를 잇는다.¹²⁾ 독립영화를 통해 저항성을 뚜렷하게 각인시킨 작품은 제주4·3항쟁을 다룬 <레드 헌트>(1997)다. 하늬영상 조성봉 감독은 이후에도 <레드 헌트 2>와 <구름비-바람이 분다>를 내놓으며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하늬영상은 주로 비디오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했다. 비슷한 방식을 채택했던 김상화·허병찬 등의 디지아트, 김이수·정재철의 M-Vision, 이미정·정기평 등의 노동영상집단공장, 계운경의 팬지시네마 등은 영화를 통해 사회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거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의지를 영화에 담아냈다. 이러한 독립영화의 전통적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 ① 저항성과 하위문화, 사회적 담론 생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영화들도 존재하고, 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어느 영화이든 저편에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9. 김○○)

11) 1956년 부산대 영문과 교수 장갑상이 주도한 부산대 영화연구회를 시작으로 1961년 동아대영화연구회가 결성되었다. 서울대 공대 중심의 대학영화모임 알라성은 1979년 결성했다.

12) 꽃다림은 부산대 운동 씨클인 '미술공동체'에서 활동하던 황의완이 부산 최초의 사회미술 운동 그룹 '그림패 낙동강'에 합류하면서 시작한 영화 소모임이었다. 이후 '그림패 낙동강'에서 독립하여 안태영과 민경수 등이 합류하면서 <가자 통일을 향해>, <진달래꽃 댕으로 살아>와 같은 저항성 짙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극영화 제작과 시월영화제 개최뿐만 아니라 UIP 직배 반대와 같은 영화계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또한 5·18광주민중항쟁을 다룬 <오! 꿈의 나라>와 동성금속 노동자 문제를 다룬 <파업전야>의 부산·경남 배급을 맡기도 했다. 촬영 도중 강제 연행이나 징집을 당하기도 하는 고난 속에서도 꽃다림은 문화운동과 연계한 다양한 영화운동을 통해 사회참여 활동을 이어갔다.

②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여전히 사회적 담론을 탐구하는 영화를 독립영화 개념으로 제작하고 있고...(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2. 문○○)

③ 독립영화란 본질적인 가치의 시작 자체가 위에 열거한 역할들(저항성과 하위문화, 사회적 담론 생산의 역할-필자)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과거 든 현재는 큰 변화는 없다 생각됨. 다만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방식의 차별성은 존재한다 생각됨.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7. 김○○)

인용문 ①에서 저항성과 하위문화성을 대표하거나 사회적 담론 생산 역할에 주력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 ②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큐멘터리영화는 이러한 정체성이 강하다고 본다. 인용문 ③은 독립영화의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근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표현방식”은 다르다고 본다. 인용문 ①에서와 같이 이러한 경향성은 전반적으로 “저편에 깔려”있기도 하다. 이처럼 예술의 저항성과 정치성을 실천하는 영화운동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희미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둘째, 상업영화 진입의 예비단계로서의 독립영화다. 지금껏 독립영화의 지향점이 정치적 저항성과 사회비판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에서 출발해 부산의 장소성과 지역성을 영화화하는 것으로 수렴해 왔다면 뚜렷한 변화지점이라 할 수 있다.

상업영화가 대체하지 못하는 특별함을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의 독립영화는 한 성별에 대한 추앙과 성적 비윤리의 변명, 상업영화를 하고 싶은 감독의 영상 포트폴리오로 보인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12. 송○○)

인용문에서는 독립영화가 상업영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함을 추구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특정 “성별에 대한 추앙이나 성적 비윤리의 변명”과 같은 주제 역시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상업영화”를 하고 싶은 감독의 “포트폴리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립영화로 감독으로서 역량을 인정받고 그 과정의 필모그래피를 배경으로 충무로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보면, 독립영화 제작을 통한 제도권 진입을 도모하는 현상을 비난하기 어렵다. 봉준호 감독이나 양준익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성장한 세대에게 독립영화란 상업

영화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검증 단계로 인식된다. 이는 왜 영화를 만드는가, 어떤 영화를 만드는가에 대한 현재 좌표이기도 하다.

- ① 독립영화가 상업영화 데뷔를 준비하는 이들의 저예산 데뷔작을 만드는 과정의 한 단계로 놓여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6. 오○○)
- ② 많은 독립영화들이 기존 상업영화의 저예산 버전으로 향하는 추세가 만연하다고 생각한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10. 이○○)
- ③ ‘한편으로는 중요한 문제인데 독립영화라고 하면 용서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독립영화 제작비가 적으니까 기술적 완성도도 떨어지고 어설픈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간담회, 김○○)

독립영화가 상업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과정이거나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한 포트폴리오라면, 독립영화는 감독의 연출력을 시험하고 다지는 샌드박스라 할 수 있다. 인용문 ①과 ②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독립영화는 “상업영화”의 “저예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독립영화를 상업영화 진출을 위한 감독의 포트폴리오로 인식하는 현상이 기존의 독립영화 정체성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영화의 질과 완성도를 담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감독 개인이 상업적 성공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 그러한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인용문 ③은 이에 대한 우려감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독립영화가 더 이상 자본화된 상업영화의 대척점에 서지 않는 오늘날 오히려 상업영화를 어설프게 추수하려는 경향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셋째, 자기서사적 기록물로서의 독립영화다. 영화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및 기기의 발달은 영화제작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었다. 그에 따라 영화제작자를 길러내는 방식도 다변화되었다. 영화제작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도 변화가 뒤따랐다. 사소한 일상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신변잡기적 이야기에도 눈길을 주면서 독립영화는 그동안 감당해 온 사회 거대 담론 생산자의 역할 대신 미시사의 저장고가 되고 있다.

- ① 독립영화는 상업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즉 외부의 영향력 없이 독립적인 주체로 창작자의 의도대로 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적 측면에서는 예술영화에 가깝고, 외적 측면에서는 저예산영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3. 김○○)
- ② 저항성과 하위문화, 사회적 담론 생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영화들도 존재하고 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어느 영화이든 위와 같은 내용이 저편에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그러한 색이 짙진 않은 것 같고 장르영화, 저예산 상업영화, 사적 다큐 등의 다양한 독립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9. 김○○)

인용문 ①에서는 영화제작의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창작자의 의도”를 지켜내며 “예술영화”를 지향한다. 인용문 ②는 오늘날 독립영화가 과거의 역할을 전면에서 내세우지 않으며 장르영화와 저예산 상업영화, 그리고 “사적 다큐”와 같은 다른 색채감을 추구하는 경향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독립영화는 사회적 담론의 생산자가 아니라 ‘자기 서사’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사적 다큐”, 즉 자기서사는 미시사적 결과물이다. 역사서술 방식의 문화사적 전환이 언어로의 전환에까지 이른 오늘날 미시사적 자료는 새로운 힘을 가진다. 가령,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일상과 해설을 담은 이해솔 <승우>(2022)는 침묵과 망각을 강요해온 국가폭력에 대한 대항기억의 서사라 할 수 있다. 엄마의 평범한 일상과 질박한 목소리를 담은 장인자 <엄마의 정원>(2022), 엄마와 화해에 이르는 여정을 담은 이남영 <강을 건너는 사람들>(2022)도 상업영화가 다루지 않는 일상과 부산 사람의 삶에 대한 독특한 시선이라 할 수 있다.

3. 부산 독립영화와 로컬리티

1) 로컬 인식과 로컬리티 전략

2000년대에 들면서 독립영화의 의미망에는 지역에 대한 의식이 이전보다 강하게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를 투쟁적으로 그

린 오지필름,¹³⁾ 탁주조합¹⁴⁾이 대표적이다. 사회구조 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한다는 랑시에르의 정치 개념을 따른다면 이러한 독립영화 제작은 대단히 ‘정치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부산 영화인들은 로컬리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부산의 장소성과 역사성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정서적 고향으로서의 장소성이다. 인문지리학자 에드워드 켈프는 인간과 장소가 맺는 깊은 유대 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장소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함으로써 애착과 친밀감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장소에 대해 세부적인 것까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¹⁵⁾을 갖게 됨을 뜻한다. 부산 영화제작자들에게 부산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 ①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계속 제작한다. 익숙한 곳에서 함께 영화를 공부했던 사람들과 작업을 한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4. 김○○)
- ② 큰 의미는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들과 작업한다는 것.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12. 송○○)
- ③ 특별하게,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산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서울이 아닌 곳에서, 영화제작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 박배일 <밀양전>(2013)은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갈등과 투쟁의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다. 밀양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제작했다. <소성리>(2018)는 사드(THAAD) 배치 때문에 평화로웠던 일상이 파괴되어가는 과정과 주민들의 마음속 풍경을 담아낸 작품이다. 그밖에 장애인, 노동자,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그들 속에서 치열하게 표현한 작품들로 우리 사회에 울림을 주고 있다.

14) 김지곤은 <낮선 꿈들>(2008), <오후 3시>(2009), <할매>(2011) 시리즈에 이어 <악사들> 2014을 제작했다. 이들 작품에서 산복도로, 동시상영관과 같은 부산의 사라져 가는 공간, 그리고 ‘할매’로 산복도로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기록했다. 오민욱은 <상>(2012), <재>(2013), <초원>(2014), <범전>(2015), <해협>(2019)을 제작했다. 미문화원 방화 사건, 시민공원 건립으로 철거대상이 된 본동마을, 백악기에 형성되었다는 황령산 기슭 암석군 등에 눈길을 주었다. 부산이라는 시공간 속에 발생한 사건이나 지역의 역사를 창의적인 이미지로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다.

15) 에드워드 켈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93~94쪽.

니다.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며 지역성에 기반한 고유한 주제를 다루는 것 보다는, 지역에서 거주지를 서울로 변경하지 않고, 이곳에서의 가능성을 유지한 채 영화를 만든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6. 오○○)

인용문 ①, ②에서 부산 영화제작자들에게 부산이라는 장소는 “익숙”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 의미”가 없다고 인식할만큼 그리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용문 ③은 그저 태를 묻은 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어쩌면 그것은 “지역성에 기반한 고유한 주제를 다루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가치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들이 작품에 지역성을 담아내는 장치로는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① 지역명 자체가 영화의 제목이 되기도 하며,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언어가 경상도(부산) 사투리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굳이 표준화하지 않은 영화제작으로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그대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3. 김○○)

② 언어(사투리). 그로 인해 대사로 표현될 수 있는 지역적 리얼리티가 강조되는 특성이 있음.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7. 김○○)

③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성(부산의 장소, 부산의 사투리, 부산의 역사 등)을 영화에 녹여내 차별화된 영화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9. 김○○)

‘부산’이나 ‘해운대’와 같은 지역명을 영화 제목으로 삼은 상업영화가 몇몇 있다. 지역명은 그 자체로 지역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부산 독립영화의 독자성은 단순히 부산이라는 공간의 영화적 재현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인용문 ①과 ②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다른 장치는 단연 “사투리”다. 경상도 지역 사투리를 구사하는 “등장인물”의 성격은 일정하게 정형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상도 사투리는 투박함, 단순함, 무뎉뎉함,

정감, 의리 같은 경상도 특유의 정서를 기호화한다. 이러한 낯것 그대로의 “지역적 리얼리티”는 곧 부산 영화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인용문 ③에 따르면 사투리와 장소성, 부산의 역사와 같은 부산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것은 곧 부산 영화를 “차별화”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콘텐츠 보고(寶庫)로서의 역사성이다. 부산은 근대계몽기 개항 도시이자 한국전쟁기 피란수도였으며 산업화시대의 번영을 일구어낸 터전이었다.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역사적 경험들이 오롯이 간직된 곳으로서 역사성이 뚜렷하다. 이는 독립영화 제작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다.

① 부산은 언제든지 발굴할 수 있는 콘텐츠 또한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예술활동을 하기에 영감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지역적 특색또한 부산에서 영화를 만드는 의미라 할 수 있겠다(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2. 문○○)

② 어떤 지역보다 부산지역민들의 사연이 많아 스토리 창작이 용이한 소재들이 많은 편임. 또한 영화적 캐릭터성을 부산 지역민으로 표현하기 가장 유리한 지점이 있음. 그렇기에 제작의미가 충분하다 생각됨.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7. 김○○)

식민지시대부터 해방기까지 부산은 들고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디아스포라의 공간이었으며, 한국전쟁기에는 전국 각지의 술한 피란민을 한껏 품었던 도시다. 제 살을 베어 삶을 나누어야 했던 토착민의 삶이나 부산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뿌리를 내려야 했던 피란민의 삶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연”이 깃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연은 “스토리 창작”의 “소재”가 되며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사연이 많은 삶을 살았던 인물은 그 자체로 “영화적 캐릭터성”을 획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2) 영화중심지 부산의 상상

현재 한국 영화의 중심은 단연 수도권과 서울이다. 충무로를 기반으로 투자·제작·배급되는 영화가 한국영화 시장에서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 그런

데도 부산은 여전히 영화의 도시라 불린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명성이나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가 함의하는 영화 관련 역량이나 잠재력에만 기댄 표현은 아니다. 영화 기반 시설과 인프라, 축제는 영화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영화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을 ‘사람’이라 본다면, 영화중심지 부산을 상상하기에 충분하다. 부산은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이며 술한 영화인들이 삶을 영위하는 도시다. 매년 장·단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가 100편 이상 꾸준히 제작된다는 점에서는 영화산업의 도시라 할 수 있으며, 아시아 영화산업 허브라는 꿈의 실현을 기대해 볼 만하다. 영화제작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영화인들과 이들이 생산하는 새로운 영화가 함께할 때 영화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독립영화의 로컬리티를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은 지역성이나 역사성에만 있지 않다. 영화중심지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부산 독립영화를 특징짓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영화 관련 대학 및 교육기관이 많고, 이로 인한 단편영화 작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권 중 가장 활발하게, 꾸준히 작품이 제작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3. 김○○)

인용문에 따르면 부산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꾸준히 영화가 제작되는 도시다. 영화 관련 “교육기관”이 많아 단편영화 제작이 활발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는다. 부산에는 경성대, 동의대, 부산대, 동서대, 영산대, 경상대, 부산예술대 등에 전공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대학에도 영상콘텐츠와 미디어 관련 학과들이 생겨나는 추세다. 대학 내에서 “단편영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꾸준하게 작품이 제작”될 수 있는 지역이다. 부산에 영화 전공학과가 여럿 있다는 점은 부산 독립영화 제작을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다. 부산이 다큐멘터리영화 제작에 강점을 가진다는 사실도 이러한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에는 대학 제도 외에도 영화·영상 관련 교육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이 적지 않다. 영화의전당 영화아카데미, 2018년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영화아

카데미,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확산으로 누구나 영상물 제작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환경의 변화가 크다. 부산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도 영화·영상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이들 기관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부터 청년,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영화·영상에 친숙해지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

부산 독립영화의 로컬리티에 대한 제작자들의 인식은 장소성, 역사성, 가능성 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신과 부모님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으면서 어느 곳보다 익숙한 공간, 부산의 역사가 품고 있는 솔한 사연은 영화적 콘텐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제도권 안팎의 영화교육 시스템과 함께 꾸준히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다큐멘터리영화 제작의 중심지로서의 부산 독립영화의 가능성은 부산 독립영화의 의미를 새롭게 여는 지점이다.

3) 부산에서 독립영화하기

(1) 생존과 정주

영화제작과 유통배급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은 엄연한 현실이다. 부산에서 독립영화를 하며 생존하고 정주를 도모하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① 맨땅에 헤딩,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가깝다. 인프라 부족, 투자금 확보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서울의 제작사들에 비해 100배는 힘든 현실이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1. 김○○)

② 영화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은 여전히 수십 년이 걸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2. 문○○)

인용문 ①은 부산에서 영화하기가 서울에 비해 “100배”는 힘들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맨땅에 헤딩,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극단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오히려 현실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인용문 ②에서도 지역에서 “영화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란 머나먼 꿈과 같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제작자들은 영화인의 수도권 유출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 ① 인프라 부족, 특히 영화인, 영화종사자의 부족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동료가 없습니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9. 김○○)
- ② 현실적으로, 부산에 많은 대학들이 영화 관련 전공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련 전문인력이 배출되지만, 그 인력들을 지역에 정착시킬 구체적 방안이 없습니다. 또한, 인력의 문제라기보단, 보편적 수준의 경제활동을 하며, 영화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현재 부산의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평범한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부산으로 임시적인 거주지를 옮기거나, 제작사의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만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6. 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에서는 영화 전공학과를 기반으로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정작 함께 작업할 “동료”가 없다.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까닭은 영화제작을 통해서는 “보편적 수준의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데 있다.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부산의 영화기관이 제공하는 알량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좇아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주소지만 옮기는 행태로 이어진다. 부산 영화제작자들에게는 박탈감을 안겨주며, 부산 영화의 생태계에서도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뿐이다.

- ① 부산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콘텐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영화 스태프가 터전을 마련하기 어렵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 유실되고 있습니다. 부산 제작사, 제작자가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영화, 콘텐츠 편수를 늘린다면 이러한 유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감독·제작자 서면인터뷰 9. 김○○)
- ② 독립영화가 적어도 1년에 5편 이상은 제작되어야 근원적인 문제점과 아쉬운 부분을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작품 수가 많아야 인력 등

인프라가 부산을 벗어나지 않으며, 선의의 경쟁 속에 다양한 예술영화가 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독·제작자 서면인터뷰 3. 김○○)

인용문 ①에서는 영화인이 부산에 정주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원인을 “부산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콘텐츠가 많이 없기 때문”으로 본다. 제작 편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인용문 ②에 따르면 제작 편수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인력의 정주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 속에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다. 작품 수는 곧 일자리이자 부산 독립영화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다. 다른 지역의 영화인력을 유인하는 방책이기도 하다.

(2) 지원과 저항

부산에서 독립영화를 하기는 곧 지원사업과 연결된다. 문제는 독립영화 제작이 지원사업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면서 지원제도라는 정책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데 있다. 지원제도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와 검열은 주제와 소재, 표현방식 면에서 창작자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독립영화의 한계는 자명하다. 또 다른 문제는 독립영화 제작과 배급에도 일정한 경향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독립영화 배급지원사업 또는 독립영화 배급시스템을 보면, 특정 경향을 지닌 영화들에 집중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배급이 될 만한 영화가 특정된다는 것은, 독립영화 제작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영화가 자유로운 예술과 영화의 실천이 되기보다는 특정 경향을 의식하는 방식으로 범주가 좁혀지는 부정의 효과를 자아냅니다. (감독·제작자 서면 인터뷰 6. 오○○)

독립영화 제작이나 배급지원이 “특정한 경향을 지닌 영화들에 집중되는 흐름”이 감지된다면, 독립영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근거는 무색해진다. 지원사업이 독립영화를 길들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제작자들의 인식에는 명확한 논리가 있다. 소위 지원이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이슈에 집중하는 방식은 단호하게 거부한다.

- ① 그렇게 되면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독창성은 미친 듯이 후퇴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그 사회적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굳이 독립 다큐멘터리가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한 이유로 작품 안에 끌어들인다면 감독의 창의성과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는 바닥을 찍을 것입니다. (대면 인터뷰, 문○○)
- ② 극영화에서도 그런 민감한 키워드를 가지고 기획한다면 관객들과 지원사업의 심사위원들에게는 짧게 어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멀리 본다면 영화가 망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립영화 혹은 그 범주에 속하는 작품들을 연출하는 감독들에게 그런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영화 속에 녹여내고 싶은 유혹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짜 의미를 작품에 녹여내지 못하고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면 완성도 면에서나 개봉 후의 작품적인 면에서나 모두 망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면 인터뷰, 김○○)
- ③ 민감하고 자극적인 이슈만을 쫓기보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혹은 외면하기 쉬운 다양한 부분들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다양한 이야기를 작품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다큐멘터리가 지향해야 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면 인터뷰, 문○○)

인용문 ①에서는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항을 영화의 주제로 삼는다면 “감독의 창의성”과 작품의 “완성도”를 크게 저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인용문 ②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것이 지원사업의 심사 과정에 “짧게 어필”하는 전략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영화를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심사에서 어필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싶은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한편, 해당 이슈의 “진짜 의미”를 작품에 녹여내는 방식을 고민한다. 인용문 ③에서는 그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다양한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내는 방식을 제안한다. 자칫 간과하기 쉬운 영역에 자리 잡은 “이야기”를 길어 올리고 “진짜 의미”를 작품 속에 담기 위해서는 영화제작자의 예리한 시각과 독창적 영화언어가 필요하다. 이는 곧 부산 독립영화의 독자성 확보와도 맞닿는다.

(3) 자기 인식과 연대

부산 독립영화의 새로운 지평은 결국 부산 독립영화 제작자의 자기 인식과 실천에서 비롯된다. 부산 독립영화의 존재가치와 의미를 만드는 사람은 다름 아닌 부산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자신이어야 한다고 본다.

- ① 부산 독립영화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부산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당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독·제작자 서면인터뷰 12. 송○○)
- ② 부산만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새로운 방식의 예술의 도시가 되었으면 하고, 이는 독립영화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LA-상업영화 / 뉴욕-인디영화 등의 공식을 성립시킨 영화의 본고장처럼 부산 독립영화도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지역 영화인들이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독·제작자 서면인터뷰 10. 이○○)

인용문 ①은 부산 독립영화의 정체성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은 각각 상업영화와 인디영화의 중심지라는 정체성을 확보했다. 인용문 ②에서는 미국의 도시들이 그 도시만의 독특한 영화적 정체성을 만들어낸 것처럼 부산 독립영화도 “어떤 새로운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영화적 정체성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것이 “지역 영화인”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영역에서 실천이 필요하다.

- ① 부산지역 출신에만 머물지 말고 전국적으로 나아가 글로벌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 꾸준히 제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감독·제작자 서면인터뷰 7. 김○○)
- ② 부산 독립영화인들의 네트워크도 필요할 것이고 영화 관련 행정가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영화제작을 하다 보면 점차 부산 독립영화의 환경도 개선될 거라 믿습니다. (감독·제작자 서면인터뷰 9. 김○○)

인용문 ①은 지역 “출신”에만 갇히지 않고 “전국적”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만큼 “완성도 높은 작품”이 지속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화 문법을 답습하거나 지역성만 좇아서는 곤란하다. 혁신과 개방적인 자세는 결국 작품의 질적 수준과 완성도를 담지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인용문 ②는 영화인 네트워킹과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부산 독립영화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연대가 필요하며, 내부적으로는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는 한편 서로의 작품에 관객이 되어 비평을 해줄 수도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부산독립영화협회를 중심으로 모퉁이극장, 영화문화 협동조합 씨네포크 등 부산지역 영화운동 단체들이 결합한 컨소시엄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를 통해 영화문화의 담론형성과 영화인 연대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¹⁶⁾ 여러 단체의 연대활동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갈마들게 마련이다. 그만큼 품과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과정이다. 어렵게 시작된 네트워킹 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까닭이다. 아울러 부산 영화인 현황과 지형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부산 영화인의 규모와 구성원의 면면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트워킹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마무리

선댄스영화제(The Sundance Film Festival)는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독립영화 축제다. 할리우드 상업주의 영화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여 독특한 시선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과 유망한 신인 감독을 솜하게 배출했다. 그러나 선댄스영화제가 독립영화제의 정체성을 잃었다고 판단한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반(anti) 선댄스영화제가 만들어졌다. 브로드웨이 연극에

16) 2023년 9월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한 라운드테이블 〈영화인간〉이 진행되었다. ‘생존’을 주제로 4회차, ‘일하는 방식’을 주제로 2회차 열린 라운드테이블에는 부산에서 영화문화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서 오프 브로드웨이와 오프-오프 브로드웨이가 파생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권위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마주하게 된다.

최근 영화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했다. 이는 영화의 물리적 존재방식과 가치를 크게 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디지털 기기와 기술의 발달, 생활문화의 약진에 따라 영화제작의 높은 장벽이 무너지면서 제작자의 범주 또한 크게 늘어난 데다 OTT와 같은 향유 플랫폼의 변화와 능동적·적극적인 관객 운동과 커뮤니티 시네마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면서 독립영화의 범주를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공공의 지원 없이는 영화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독립영화라는 용어가 정책적 함의를 강하게 가지게 되며, 상업적 성공만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어지면서 현실적으로 독립영화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독립영화를 저항성이나 사회 운동성이라는 전통적 개념과 가치에 매몰되어 사유한다면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영화 제작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독립영화의 정체성과 의미, 부산 독립영화와 로컬리티를 살펴 보았다. 오늘날 독립영화라는 용어를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독립영화의 지향점 역시 다양해졌으며, 로컬리티의 인식이나 표현 전략도 지역성과 장소성 뿐만 아니라 영화중심도시 부산의 상상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어졌다. 오늘날 부산 독립영화에는 영화인으로서의 상업적 성공에서부터 사적 기록, 영화도시 부산과 사회적 담론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욕망이 자리했다. 무엇보다 영화중심지 부산의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화인의 자기 인식과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부산 독립영화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독립’을 여전히 해방이나 저항의 의미에만 수렴한다면 독립영화의 외연은 확장될 수 없다. 정치와 비정치, 거대담론과 미시서사, 거대자본과 저예산, 지배와 하위,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이분법으로 독립영화를 개념화해서도 안 된다. 이제 독립영화가 ‘독립’해야 할 대상은 바로 독립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망이다. 그렇게 할 때 오늘의 독립영화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망을 한껏 껴안고 영화중심도시 부산이라는 상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부산 독립영화 감독 및 제작자 대면 인터뷰 전사록
부산 독립영화 인식 연구를 위한 간담회 전사록
부산 독립영화 제작자 및 감독 서면 인터뷰 결과지

2. 논저

- 강소원, 「21세기 가족의 초상: 최근 부산단편영화에 나타난 가족의 현존 혹은 부재」,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14, 한국독립영화협회, 2017.
- _____, 「변방의 변방, 지역 독립영화의 현황: 부산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15, 영상예술학회, 2009.
- 강지원, 「보여주기의 방법으로 말하기(양영진 감독의 세 영화를 중심으로)」, 『부산 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8, 부산독립영화협회, 2011.
- 김상화·장현정·류성효, 『부산, 독립문화를 말하다』, (재)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 연구센터, 2009.
- 김은아, 「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고 싶었다: 그들과 나의 기록」,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5, 부산독립영화협회, 2008.
- 김은영, 「부산 영화문화의 기억들」, 『부산 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24, 부산 독립영화협회, 2005.
- 김이석, 「지역영화의 위기 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부산독립영화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4,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0.
- _____, 「부산독립다큐멘터리」,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10, 부산독립영화협회, 2013.
- _____, 『부산 영화로 이야기하다』, 비온후, 2017.
- 김지석, 『영화의 바다 속으로』, 본복스, 2015.
- 김필남, 『지역, 예술을 말하다』, 소명, 2012.
- 김희진, 「씨네마떼끄 1/24의 이름으로 지낸 나날들」, 『부산독립영화작가론』 2, 부산독립영화협회, 2005.
- 남영희·이순옥,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과 영화 〈낙동강〉」, 『한국학연구』

- 8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 문관규, 『한국 독립영화 감독 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1.
- _____, 「영화 운동가의 초상과 독립 영화 운동의 풍경—이효인, 『한국 뉴웨이브 영화와 작은 역사』(한상연영화연구소, 2021)」, 『한국극예술연구』 76, 2022.
- 문관규 외 여럿, 『부산영화사』,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문재원 외, 「2010년 이후 부산영화의 현실」,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18, 부산독립영화협회, 2021.
- 박인호, 「부산의 공간에서 김희진 감독을 읽다」,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25, 부산독립영화협회, 2006.
- 박훈하 외 여럿, 『마이너리티, 또 다른 부산의 힘』, (재)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3.
- 부산독립영화협회, 「영화페 ‘꽃드림’에 대한 기억」,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2, 부산독립영화협회, 2005.
- 신은실, 「영화공동체 새벽별의 추억」,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2, 부산독립영화협회, 2005.
- 안병화 편저, 『부산의 영화 부산의 극장』, 국제신문, 2005.
- 엄준석·장슬기, 「지역의 정체성과 영화의 재현방식」, 『인문콘텐츠』 31, 인문콘텐츠학회, 2013.
- 우정태, 「부산 독립영화의 운동사적 궤적」,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1, 부산독립영화협회, 2004.
- 유현목, 『유현목의 한국영화발달사』, 책누리, 1997.
- 윤중목·남희섭 엮음, 『독립영화 워크숍, 그 30년을 말하다』, 목선재, 2015.
- 이효인, 『영화미학과 비평입문』,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 정한석, 「밀양아리랑: 늙은 병사의 노래, 제목은 내 나이가 어때서」,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12, 부산독립영화협회, 2015.
- 주성철, 「부산대학교 영화연구회에서 FRAME까지」,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2, 부산독립영화협회, 2005.

3. 기타자료(보고서)

- 김미현 외 여럿, 「예술영화관 지원정책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7.
- 김영기 외 여럿, 「2016년 한국 영화산업 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 2018.
- 김지현 외 여럿, 「독립영화 생태계 구조 분석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8.
- 김지현 외 여럿, 「한국 독립영화·독립영화인 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 2018.
- 박채은 외 여럿, 「독립·예술영화의 사회적 가치 지표개발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21.
- 원승환 외 여럿, 「독립영화 정책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3.

4. 기타자료(웹사이트)

-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홈페이지 www.bisff.org
-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www.biff.kr
- 부산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 indiebusan.modoo.at
-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fc.or.kr/>
-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홈페이지 busanpostlab.kr
- 영상산업센터 홈페이지 www.bvic.kr/
-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www.dureraum.org/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indieground.kr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www.kmdb.or.kr
-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www.kafa.ac

〈Abstract〉

Reality and Challenges of Busan Independent Film - Focusing on Busan Filmmakers' Perception -

Nam Young-Hee·Kim Geun-Ja·Cho Young-Ae·Lee Soon-Wook

This study examines the identity and meaning of independent film and the locality of Busan independent film,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filmmakers in Busan. After analyzing data from written interviews, face-to-face interview, and face-to-face meeting, it was found that independent film is perceived as a portfolio for commercial film production, a self-narrative record, and a policy term for support projects in Busan, while maintaining its social movement past. Today, as the term independent film can be interpreted in multiple ways, the orientation of independent film has also diversified. Strategies to reveal the locality of Busan independent films include the place of hometown, the sentiment of the Gyeongsang-do region symbolized by the dialect, the historicity of the port city and the Wartime capital, and the belief in the future of Busan as a film city with infrastructure such as film education and support systems and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bove all, it is significant that they recognize the need for self-awareness and solidarity among filmmakers in order to realize their imagination of Busan as a center city of film. This is a driving force to open a new horizon for Busan independent film, which has a wide range of desires, from commercial success as a filmmaker to private records and the formation of social discourse about Busan as a film city.

* Key Words: Busan, Independent Film, Locality Strategy, Filmmakers, Film-making Support

·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11일 ·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21일 · 게재결정일: 2023년 11월 24일
--